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전시 개막



- 서울시립미술관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One Escape at a Time)》 전시 개막, 41명/팀의 작품 58점 선보여
- 예술감독 융 마(Yung Ma)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개최 이래 첫 외국인 감독으로, 경제위기와 코로나팬데믹으로 심화된 우울한 시대 풍경에 예민하게 반응한 젊은 작가들에 주목
- 최근 사회적 화두로 대두된 인종주의, 젠더, 계급, 정체성, 이주와 환경 문제 등을 예술로 전유하여 불안한 현실을 돌파하는 신작 소개
-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는 비엔날레는 대중미디어, 도시환경 속 미디어, 손 안의 미디어 등 여러 실험적 접근으로 20년 넘는 역사 이어가
- 이번 비엔날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미술관 안과 밖을 아우르는 유통망과 메아리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현대미술 전파

□ 서울시립미술관(관장 백지숙)은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One Escape at a Time)》의 전시를 개막한다. 이번 비엔날레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연기되어 3년 만에 개최,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2021년 9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국내외 작가 41명/팀의 작품 58점을 선보인다.

○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주제는 ‘도피주의(escapism)’로,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개인의 욕망을 예술과 대중문화의 상상력으로 연결하여 살펴본다. 현실 밖을 향한 상상력은 타자와 공감하는 통로를 만들고,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방식을 경험하도록 이끈다. 이번 비엔날레는 이와 같은 도피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살피고, 그를 바탕으로 폭넓은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는 작품을 소개한다.

○ 특히 코로나팬데믹의 장기화와 함께 수면위로 떠오른 인종주의, 젠더, 계급, 정체성, 이주, 경제 위기, 환경 문제 등 대두되는 사회적 쟁점들에 대하여 이번 비엔날레는 도피주의를 비평적 도구로 삼아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초대된 작가들은 심리적으로 두려움, 불안, 슬픔과 불확실성 등이 심화되면서 현실 도피와 고립이 일상화되는 우울한 시대적 풍경을 감각하고 예술의 언어로 전유하는 신작을 다수 소개한다(비엔날레 제작지원 13점).

□ 코로나19로 인해 개막일이 1년 연기되는 동안 작가들은 변화하는 주변 상황을 감지하여 새로운 감각을 작품에 반영하고 형식적 전환을 이루는 기회로 삼았다. 또한, 웹 기반으로 제작 지원된 ‘ONEROOM과 ‘합정지구’의 온라인 프로젝트는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된 코로나 시대에 미술 작품의 다각화된 감상과 향유 방식을 제안한다.

○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될 당시 중국 우한에 거주하던 작가 리랴오(Li Liao)는 손바닥 위로 기다란 나무 장대의 균형을 잡으며 봉쇄령으로 인적이 드문 우한의 거리 곳곳을 누비는 퍼포먼스를 기록한 비디오 작품을 소개한다.

- 토비아스 칠로니(Tobias ZIELONY) 는 최근 독일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주민 혐오나 인종 차별 등 사회적 쟁점을 상기시키는 좀비 이미지,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기간 동안 주변의 사물과 풍경에 대한 기록, 독일, 일본, 한국, 몰타의 도시에서 밤을 배경으로한 청년들의 초상을 재구성한 사진 연작을 소개한다.
- 마포구의 비영리 예술공간 ‘합정지구’는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적 단절을 소통의 계기로 전환해, 일상과 창작, 공동체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는 온라인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 이번 비엔날레는 하나의 음악 장르로서 세계 대중문화의 지형도에 자리 잡은 케이팝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케이팝이 구성되는 방식을 참조하거나 기존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등 대중문화의 여러 면모를 미술적 언어로 표현하는 작업들을 소개한다.
- 안무가이자 퍼포머인 아이사 흑슨(Eisa JOCSO)은 한국 케이팝 아이돌의 음악과 안무를 차용해 팬데믹 시대에 대처하는 필리핀 정부의 모순을 비판한다.
- 싱가포르 출신 작가 밉 윈(Ming WONG)이 2021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왕립예술학교 학생 여섯 명과 결성한 ‘스웨덴 케이팝 보이밴드’ C-U-T는 대중음악 산업에서 충분히 재현되지 않는 탈국적 가치를 강조하는 실험적 프로젝트이다.
- 한편 미술관 로비 전체를 감싸는 미네르바 쿠에바스(Minerva CUEVAS)의 대형 벽화 작업은 픽셀 비디오 게임과 같은 시각 언어를 사용해, 식품 산업과 동물권에 관한 작가의 소신을 표현한다. 이 작품은 국내에서 동물권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온 임순례 영화감독에 대한 오마주를 담고 있다.
- 전시작품은 미디어 광고, 시트콤, 대중 영화와 이미지 유통 플랫폼까지

오늘날 대중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참조하여 영상, 설치, 사진, 회화, 드로잉, 사운드, 웹 기반 등 다양한 매체 형태로 소개한다.

- 홍진훤(Jinhwon HONG)은 유튜브와 같은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산업이 우리가 접하는 시각 콘텐츠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또 그로 인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가치관을 어떻게 제한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를 교란시키는 대안적인 영상 구독 서비스를 제시한다.
- 유리 패티슨(Yuri PATTISON)은 LED 스크린에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를 장착하여,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방사선 등 오염도를 수치로 연결하고, 이렇게 생성된 실시간 데이터를 디지털 렌더링으로 처리하여 일출과 일몰 이미지를 보여준다.
- 지난 8월부터 서울 전역의 카페, 서점, 상점, 도서관 등 민간과 공공 문화 거점 9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유통망 프로젝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미술관 안과 밖을 아우르며,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현대미술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삼성역의 80m 크기 미디어캔버스인 케이팝스퀘어미디어에서 진행되는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at 케이팝스퀘어”는 8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매시 2회씩 비엔날레 참여 작가 5인/팀의 작품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8월 28일 첫 개시한 취미가x워크스의 <OoH>는 광고가 구사하는 시각 언어와 문법의 임의성을 비판적으로 해석한다.
- TBS TV 프로그램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on TBS”은 9월 18일 오후 11시 부터 57분간 비엔날레 초청작품 6점을 차례로 송출하여 안방에서도 현대미술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한다(재방송 9월 25일 오후 11시).

- 또한 비엔날레의 공공프로그램 ‘메아리’는 전시의 외연을 확장하며 현대미술과 관객이 조우하는 접점을 다각도로 제공한다. 토크, 퍼포먼스, 강연, 워크숍, 전시투어로 이루어진 메아리는 전시 기간 동안 진행되며 비엔날레 웹사이트에서 사전 예약하고 참여할 수 있다.
- 존 맥컬리(John MCCURLEY)는 어린 시절 방문했던 캐나다 산 꼭대기 호수를 찾아가 야생동물 보호지구의 정치화된 풍경 속에서 자연 다큐멘터리나 동물 관찰 카메라 영상처럼 보이는 실시간 라이브 피드를 온라인으로 상영한다.
- 스웨덴 케이팝 밴드 C-U-T는 데뷔곡인 〈KALEIDOSCOPE〉를 전세계에 런칭하는 이벤트 형식으로 온라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본 퍼포먼스는 비엔날레의 국제 미디어 파트너인 프리즈와 협력 하에 개최된다.
- 그 외에도 대중미디어와 새로운 매체 및 기술의 교차를 살펴보는 강연 시리즈 〈대중미디어 가이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방법으로서 도피주의를 글쓰기를 통해 탐구하는 〈SF 글쓰기를 따라 탈출하기〉와 같은 참여적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 융 마 예술감독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아시아 대도시 서울에서 ‘미디어’라는 개념을 확장하며 20년이 넘는 역사를 쌓아온 국제적 비엔날레이다. 이번 비엔날레를 기획하면서 대중 미디어, 도시 환경 속 미디어, 손 안의 미디어 등 다양한 실험으로 이를 이어가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비엔날레를 찾는 한국 관객들이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과 만나고, 나아가 연대와 ‘함께 있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전했다.
-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국내 유일의 국공립 미술관이 직접 개최하는 비엔날레로서, 미술관의 정체성과 함께

하는 비엔날레다. 현대미술을 통해 국제사회와 지역사회가 만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류의 장, 서울 도심을 배경으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가깝게 소통하는 축제로 거듭날 것”이라고 언급하며,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에 지친 시민의 일상에 신선한 전환이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 상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웹사이트(mediacityseoul.kr)와 서울시립미술관 웹사이트(sema.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코로나 19로 대면 전시 해설 서비스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오디오 가이드는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도슨팅 앱과 전시전문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 ‘큐피커’를 통해 들을 수 있다.

- 붙임 : 1.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개요
2. 주요 작품 및 전시전경 사진자료

1.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개요

- 제 목: [국문]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
[영문]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One Escape at a Time*
- 기 간: 2021년 9월 8일 - 11월 21일
- 장 소: 서울시립미술관
- 예술감독: 융 마(Yung Ma, 前 파리 폰피두센터 큐레이터)



- 참 여 자: [총 41명/팀] 강상우, 고등어, 김민, 라이프 오브 어 크랩헤드 (에이미 램, 존 맥컬리)[Life of a Craphead (Amy Lam and John McCurley)], 류한솔, 리랴오(Li Liao), 리우추앙(Liu Chuang), 리처드 벨(Richard Bell), 림기웅(Lim Giong), 무니라 알 카디리(Monira Al Qadiri), 미네르바 쿠에바스(Minerva Cuevas), 바니 아비디(Bani Abidi), 브리스 델스페제(Brice Dellspenger), 사라 라이(Sarah Lai), 샤론 헤이즈(Sharon Hayes), 쉬쩌위(Hsu Che-Yu), 씨씨 우(Cici Wu), 아마츄어 증폭기, 아이사 흑슨(Eisa Jocson), 아마시로 치카코(Chikako Yamashiro), 올리버 라릭(Oliver Laric), 왕하이양(Wang Haiyang), 요한나 빌링(Johanna Billing), 유리 패티슨(Yuri Pattison), 장영혜중공업, 장윤한(Chang Yun-Han), 정금형, 취미가x워크스, 치호이(Chihoi), 탈라 마다니(Tala Madani), 토비아스 칠로니(Tobias Zielony), 폴 파이퍼(Paul Pfeiffer), 폴린 부드리/레나테 로렌츠(Pauline Boudry / Renate Lorenz), 필비 타칼라(Pilvi Takala), 하오징반(Hao Jingban), 합정지구, 헨리케 나우만(Henrike Naumann), 흥진현, DIS, C-U-T(닐스 앙스트림, 발렌틴 말름글렌, 빅토르 포겔스트림, 아론 포겔스트림, 카론 닐센, 카이우 마르케스 드 올리베이라, 밍 웅), ONEROOM

- 주 최: 서울시립미술관

- 후원 및 협력
 - 서울시립미술관 기업후원: 하나금융그룹, 에르메스 코리아
 - 비엔날레 파트너: RC 재단
 - 미디어캔버스 파트너: CJ파워캐스트
 - 방송 파트너: TBS
 - 국제미디어파트너: 프리즈(frieze)
 - 파트너: 2021 미술주간
 - 문화 파트너: 독일국제교류처, 영국문화원, 일본문화청(아트 플랫폼 재팬), 캐나다예술위원회, 컬처 아일랜드, 토론토예술위원회, 프랑스문화원, 프레임, 프로 헬베티아, 홍콩예술발전국

2. 전시 설치 전경 (준비 중)

이미지	파일명	캡션
	SMB11_SeMA 2021_1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 포스터. 그래픽 디자인: 워크숍스, 파크랭거 협업.
	SMB11_SeMA 2021_2	취미가X워크스, <OoH>, 2021,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유통망 설치전경, 강남구 케이팝 스퀘어미디어. 촬영: 흥철기, 글림워커픽쳐스
	SMB11_SeMA 2021_3	취미가X워크스, <OoH>, 2021, 현수막, 가변크기.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설치전경. 촬영: 흥철기, 글림워커픽쳐스
	SMB11_SeMA 2021_4	취미가X워크스, <OoH>, 2021, 현수막, 가변크기.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설치전경. 촬영: 흥철기, 글림워커픽쳐스
	SMB11_SeMA 2021_5	미네르바 쿠에바스, <작은 풍경을 위한 레시피>, 2021, 벽면에 아크릴, 가변 크기. 픽셀 아트 디자인: 프란시슈액 얀 노보트니악. 벽화 작업: 고경호, 김민정, 김수연, 이건희, 이제, 최주웅.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설치전경. 촬영: 흥철기, 글림워커픽쳐스
	SMB11_SeMA 2021_6	

	<p>SMB11_SeMA 2021_7</p>	<p>홍진훤,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잇 v2.0>, 2021, 복합매체 설치, 웹 기반 유튜브 구독 및 스트리밍 서비스, 단채널 비디오 2개, 컬러, 각 18분 25초, 20초, 루프, 사진, 피그먼트 프린트, 200 x 150 cm. 푸티지 제공: 미디어 참세상.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전시전경. 촬영: 홍철기, 글림워커픽처스</p>
	<p>SMB11_SeMA 2021_8</p>	
	<p>SMB11_SeMA 2021_9</p>	<p>리략오, <모르는 채로 2020>, 2020, 3채널 비디오 설치, 컬러, 사운드, 각 6분 52초, 10분 39초, 16분 45초. 작가 제공.</p>
	<p>SMB11_SeMA 2021_10</p>	<p>DIS, <절호의 위기>, 2018,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3분 48초, 작가와 런던 프로젝트 네이티브 인포먼트 제공.</p>
	<p>SMB11_SeMA 2021_11</p>	<p>아이사 흑슨, <슈퍼우먼: 돌봄의 제국>, 2021, 뮤직 비디오와 설치, 컬러, 사운드, 12분 17초, 가변 크기. 아이사 흑슨과 버니 카닥, 캐서린 고, 테레사 바로조, 프란체스카 카사우아이(aka 필리핀 슈퍼밴드). 촬영 및 편집: 브랜든 렐루시오. 작가 제공.</p>



SMB11_SeMA
2021_12

작가 C-U-T(닐스 앙스트림, 발렌틴 말름글렌, 빅토르 포겔스트림, 아론 포겔스트림, 카론 닐센, 카이우 마르케스 드 올리베이라, 밍 웅)의 프로필 사진. 작가 제공. 사진: 테레스 외르발.

기본 정보

- 주 최 : 서울시립미술관
- 담 당 자 : 비엔날레 프로젝트 디렉터 권진
(nakwonjin@seoul.go.kr / 02-2124-8975)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협력 큐레이터 이지원
(press@mediacityseoul.kr / 02-2124-8976)
- 홍보문의 : 교육홍보과장 봉만권(go1107@seoul.go.kr/ 02-2124-8912)
주무관 정지혜(jjh0324@seoul.go.kr / 02-2124-8917)

**관련 이미지
다운로드 방법**

- 서울시립미술관 웹하드 접속(<http://sema.webhard.co.kr>)
- 로그인(아이디 semapress, 비밀번호 sema)
- 이미지 다운로드([내리기전용] 폴더 →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폴더 →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전시 개막] 폴더)